

# “연내 IRP 진출… 사모펀드도 개척 ‘연금名家’ 될 것”

(퇴직연금 펀드)

## 신재영 포스증권 사장 간담회

펀드관련 유관기관 신사업 추진  
9월25일 자산관리 앱 ‘포스’ 출시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포스증권 기자간담회에서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가 회사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포스증권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한국포스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기존 공모펀드 판매 중심에서 개인연금·사모펀드 등 모든 유관사업으로 발을 뻗어 나갈 예정이다.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포스증권, 자산관리시장 혁신신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펀드와 관련한 모든 유관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온라인 자산관리 시장 선도할 것”  
이날 신 대표는 ▲연금펀드 ▲사모펀드 ▲공모펀드 등 펀드 시장에서의 개선 방향을 내놨다.

우선 연내 퇴직연금 펀드(IRP)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신 대표는 “모든 사업 계획을 마무리 했다”며 “합

## <연금자산관리센터 역할과 서비스>

연금자산관리	종합컨설팅	원스탑 업무처리
고객맞춤 연금펀드 포트폴리오 제공	연금저축 및 세무컨설팅	연금계좌 개설 및 신규가입절차 지원 (원격지원 등)
보유상품 진단 및 리밸런싱 상담	다양한 금융제도 맞춤 컨설팅	연금저축상품 이전 등 상품거래 통합지원
투자정보 정기발송	연금수령 및 재운영 토탈컨설팅	인출 및 증명서 등 업무처리 지원

50% 미만 수준의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온라인 사모펀드 플랫폼을 통해 사모펀드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는 투자자 각자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신 대표는 “고객 경험을 반영한 투자 유형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펀드 추천 체계를 만들고, S클래스 외에 Ae, Ce 등 온라인 클래스 범위를 확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주체들과 공존공생의 자산관리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핀테크(finance+tech)사들과는 전략적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 장기투자 문화 형성을 위한 자산운용사와 협력, 자문서비스와 펀드 플랫폼간 시너지 추구를 추구하는 등 자문업자와 상생 방안도 내놨다.

◆“FOSS, 혁신적 서비스 제공”  
포스증권은 창립기념일인 오는 9월 25일 자산관리 앱 ‘포스’(FOSS)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 대표는 “앱 혁신의 방향성은 편한 금융, 고객 맞춤, 고객 니즈 중심의 비

즈니스”라며 “새로운 기술 접목을 통한 신개념 자산관리시장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 계좌개설, 간편 인증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로보어드바이저와 상품 큐레이션 기능을 탑재해 고객 성향별 맞춤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9월 말까지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하루만 맡겨도 1.3% 금리가 가능한 고금리 예수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11월 중 개인형 IRP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펀드 담보 대출(TB D)도 시행해 펀드 자산의 현금 유동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체크카드 서비스와 간편잔고·송금·지급 서비스 등 생활 금융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신 대표는 마지막으로 “펀드 투자 고객이 다른 금융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21년까지는 확실한 흑자전환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KB증권 전인지 골프콘서트 개최

KB증권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 화산컨트리클럽에서 VIP고객을 대상으로 ‘KB증권과 함께하는 전인지 골프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골프콘서트에서는 KB증권 박정립 사장의 시타를 시작으로 KB증권 VIP고객 108명과 전인지 프로 및 KB증권 임직원 36명이 각 조에 편성되어 동반 라운딩을 펼쳤다. 특히 지난 2018년 LPGA투어 우승을 차지한 전인지 프로가 직접 드라이버 워 포인트 레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손업지 기자

## 대신자산운용

### 800억 부동산펀드 완판

대신자산운용은 해외부동산펀드인 ‘대신 재팬(Japan) 하임 부동산투자신탁 제3호’ 모집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800억원으로 지난 13일 설정돼 운용 중이다. 공모형 해외 부동산 펀드로 운용기간 동안 임차인인 ‘파나소닉 컨슈머 마케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제공하고 만기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구조다. 펀드가 투자하는 ‘카날 사이드 빌딩(Canal Side Building)’은 연면적 4만4350㎡(1만3416평)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11층, 옥탑 1층으로 구성된 오피스 빌딩이다.

/손업지 기자

# 분양 성수기… ‘숲세권 아파트’ 큰 장 열린다

인천 ‘주안 캐슬&더샵 에듀포레’  
최고 35층, 13개동, 38~84㎡ 규모  
총 1856가구 중 835가구 일반분양



‘주안 캐슬&더샵 에듀포레’ 투시도.

아파트 분양 성수기를 맞아 큰 장이 서고 있다. 특히 도심속에서 녹지를 만끽할 수 있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총괄녹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녹지 면적은 약 15.32㎢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605.21㎢)의 약 2%에 머무른다. 도심권에서 녹지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알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4일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조경 시설이나 녹지공간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도심권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새로운 단지 내 조경 시설을 제외한 녹지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커 도심권에서 녹지를 누리는 단지는 매매가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에 위치한 ‘꿈의숲 코오롱하늘채’(513가구 규모)는 서울 최대규모의 북서울꿈의숲을 마주하고 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7억5000만원으로 장위동 일대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를 형성 중이다.

반면 같은 장위뉴타운내에 위치한 ‘꿈의숲 코오롱하늘채’와 약 500m 떨어져 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7억2000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녹지가 가까운 단지들은

청약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360개 단지 중 361.65대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전 갑천 트리플시티’는 대전 도심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갑천과 도솔산이 가까운 단지였다.

이외에도 도봉 포레 미소지움(227.3대 1), e편한세상 둔산 1단지(321.36대 1) 등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단지들은 도심권에서 수변 또는 녹지의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들이었다.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의 분양물량

이 쏟아질 예정인 봄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도심 속 녹지를 갖춘 단지들이 속속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주안 캐슬&더샵 에듀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13개동, 전용면적 38~84㎡ 총 185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구월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중앙공원을 비롯해 ‘주안 캐슬&더샵’과 인접하고 있는 석바위공원 등 도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일대에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20가구로 이뤄진다. 단지는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대전천과 유등천과 인접하고 있다. 중촌 시민공원도 도보권내에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1분기 여의도 오피스 공실률 5년來 최저

서울 공실률 11.7%, 0.7%p ↓

올 1분기 서울 여의도 권역 오피스 공실률이 10.6%로 최근 5년來 최저치를 기록했다.

14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주요 권역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은 11.7%를 기록, 전 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공유오피스 ‘저스트코(JustCo)’가 서울파이낸스센터와 페퍼타워에 입주했고, 스파크플러스가 센터플

레이스로 입주하는 등 공유오피스의 확장세가 탄력을 받아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준공 이후 장기간 대형 공실로 남아 있던 루첸타워에는 현대오트모에버가, 강남N타워에는 EA코리아와 세니오스텔스가 입주해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메리츠증권증권이 본사 조직을 하나로 통합, 국제금융센터(IFC)3에 입주하고 2분기 IFC 자체 공유오피스가 개관, 공실률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성 기자

## 롯데건설, 베트남서 아파트·신도시 추진

노바랜드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롯데건설이 베트남에서 고층 아파트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롯데건설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베트남 노바랜드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치민시 1군의 더그랜드 맨하탄(The Grand Manhattan), 2군의 아파트 단지 2곳의 시공과 호치민시 및 호치민시 인근의 신도시 개발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노바랜드 그룹

은 베트남에 1992년에 설립된 부동산 개발 업체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의 선두주자이며 올해 약 65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노바랜드 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 체결로 검토되는 프로젝트는 총 5건이다. 3건의 시공과 2건의 신도시 개발이다. 이 중 첫번째 더그랜드 맨하탄(The Grand Manhattan) 프로젝트는 호치민시 지하 4층~지상 38층, 3개동, 대지면적 1만4000㎡, 아파트 1031가구, 오피스텔 231세대 규모다.

/이규성 기자